역발상 지역을 바꾸다! 얼음 나라 화천 산천어축제

이인재
경원대학교 관광경영학과

출처: http://www.narafestival.com

축제는 대체로 방문객들이 참여하기 용이한 따뜻한 봄이나 가을에 많이 열리지 한여름과 한겨울에는 좀처럼 열리지 않는다. 이런 것은 통계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는데 2009년 문화관광체육부가 지정한 57개 축제 중에 겨울축제는 단 3개에 불과하다. 하지만 때론 이러한 상식을 벗어난 역발상이 지역의 명물로 자리 잡기도 한다.

강원도 화천! 차가운 계곡바람과 깨끗한 물이 만나 전국에서 가장 빨리 가장 두꺼운 얼음이 어는 지역, 군대 얘기하면 빠지지 않는 강원도 겨울에 고생하던 이야기의 배경, 이렇듯 나라를 지키는 군인조차 두려워하는 영하 20도를 밑도는 강원도 화천의 겨울을 배경으로 2003년 제1회 산천어 축제가 열렸다. 그리고 처음에 주민조차 무관심을 넘어 비난을 마다하지 않았을 법한 축제 첫해에 22만의 인파가 몰렸다.

겨울에 얼음낚시 축제를 여는 역발상

누구나 그렇듯 자신의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커 보이기 마련이다. 장점을 장점으로 보지 못하고 지역이 가지고 있는 단점을 장점으로 살리지 못했다면 지금의 화천 산천어축제는 없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화천 산천어축제는 지역민으로 하여금 지역의 장점을 볼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게 하였다는 점으로 우리나라 지역축제가 갖는 장점 중 하나라 생각된다.

화천 산천어축제의 슬로건은 '얼지 않은 인심, 녹지 않는 추억'이다. 첫해 22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여 깜짝 스타가 된 화천 산천어축제는 지난 8년 동안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해왔고 2010년 올해의 경우 130만 명의 방문객에 450여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왔다고 한다. 인구 2만 4천 명의 화천군에 130만의 인파가 23일 동안 다녀갔으니 녹지 않는 인기이다.

이러한 녹지 않는 인기의 비결은 프로그램 속에 정교하게 삽입되어 있다. 2010년에 개최된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산천어 얼음낚시, 산천어 맨손잡기 등과 같은 산천어 체험프로그램과 얼음썰매, 눈썰매, 눈조각, 얼음축구 등 약 30여 종의 다양한 눈 · 얼음 체험프로그램, 선등거리, 세계 겨울도시광장, 아시아 빙등광장 등과 같은 볼거리로 구성되어 있다.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산천어 체험프로그램

화천 산천어축제의 핵심은 화천의 두꺼운 얼음을 깨고 바닥까지 보이는 맑은 물속에 노니는 산천어를 낚는 산천어 얼음낚시이다. 두꺼운 얼음구멍에서 낚싯줄에 매달려 나오는 산천어를 보는 느낌은 사뭇 흥분이 되나보다. 낚싯줄에 매달린 산천어보다 더 기뻐서 날뛰는 낚시꾼의 모습에는 즐거움이 넘쳐난다. 다만 이러한 낚시꾼의 마음을 헤아려 화천군에서 하루에 2~3번 정도 양식한 산천어를 방류한다. 그래서 가끔 화천군 홈페이지에는 화천에 산천어가 실제 사느냐는 질문이 곧잘 올라온다.

산천어 낚시가 온 가족이 함께하며 즐기는 놀이라면 '산천어 맨손잡기'는 일부 용감한 사람의 전유물이다. 홈페이지에서는 백과사전의 형식을 따라 '산천어 맨손잡기'를 다음과 같이 재미있게 설명하고 있다.

출처: http://www.narafestival.com

산천어 맨손잡기란
〔동사〕 산천어는 잡고 싶은데,
낚시의 기다림이 싫을 때,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얼마 없는데
산천어는 구경도 못했을 때,
이 정도 추위쯤은 우습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
맨손으로 산천어를 잡는 행동.
예) 얼음낚시도 루어낚시도 자신 없다.
믿을 건 오직 체력,
난 산천어 맨손잡기로 산천어 잡는다.
(출처: 친절한 얼곰씨 백과사전)

쉽게 지루함을 느끼는 어린이들을 위한 눈 · 얼음 체험프로그램

언제부터인가 축제의 목표 시장은 자녀를 둔 20~30대 가족이다. 화천의 산천어축제도 예외는 아니므로 어린이를 위해 눈과 얼음을 소재로 한 크고 작은 체험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았다. '세계 눈사람 광장'에서 세계의 눈사람과 눈 조각을 배경으로 사진도 찍고, '콩닥콩닥 봅슬레이'로 스릴을 만끽하고, 뒤뚱뒤뚱 '얼음 축구', 축제 마스코트 '얼곰이 열차'로 축제장 돌기 등은 쉽게 지루함을 느끼는 어린이들에게 지치지 않는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하루 밤을 묵어가게 하는 선등거리

올해 선등 광장에선 농한기 농촌 어른의 손으로 만들어진 15,000여 개의 선등과 LED가 어우러져 화천읍의 밤하늘을 밝혔다. 밤이면 황량하고 쓸쓸해져 돌아가는 발걸음을 재촉했던 강원도 산간 마을의 밤하늘에 드리워진 아름다운 조명은 관광객들에게도 즐거이 머무르게 하는 충분한 이유를 제공해 준다. 어린이를 가진 자녀라면 '사랑방 마실'도 눈여겨 볼 만하다. 사랑방 마실은 주변지역과 축제장을 연계하는 프로그램으로 화천군 내 농촌체험마을을 홈페이지에 올려 홍보하고 있는데 마을단위의 작은 축제와 다양한 체험행사가 열려 입맛대로 고를 수 있다.

지역의 경제를 살리는 '화천사랑 상품권', '농특산물 나눔권'

마지막으로 화천사랑 상품권, 농특산물 나눔권의 발행에는 축제 운영자의 지혜가 엿보인다. 화천 산천어축제에서는 각종 입장권을 구입하는 사람들에게 5,000원 상당의 화천사랑 상품권, 농특산물 나눔권을 나누어 주고 있다. 차라리 입장권을 싸게 하지 왜 그리 복잡하게 할까 하는 마음도 있지만 화천사랑 상품권, 농특산물 나눔권을 발행함으로써 사람들에게 1차적으로 농산물을 구매하게 하고, 한 번 써본 사람들이 다시 구매하는 등 농산물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이런 크고 작은 프로그램 속에 녹아든 축제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정성은 때로는 관광객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나아가 지역 주민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니 소위 이것이 상생(win-win)이요, 공정 여행(fair travel)이 아닌가 싶다.

우리 마음속에 이미 존재 했던 화천

화천은 산천어축제 말고도 우리의 마음속에 이미 존재했던 마을이다. 평화의 댐, 우리나라 3대 가곡 중 하나인 '비목'의 배경이 된 고장, 생태 관광에 대해 조금만 관심이 있다면 한 번쯤 들어본 '토고미 마을', 휴전선 임도를 활용한 'DMZ MTB'와 같이 알게 모르게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미 들어와 있었다. 화천 산천어축제는 얼음을 깨서 겨울 낚시를 하듯 우리들의 마음속에 들어와 있던 화천을 마음속에서 꺼내 우리에게 보여주는 에너지가 느껴진다.

축제의 핵심은 어울림이다. 여행이 일상 생활권을 벗어난 활동이라면, 축제는 일상 생활권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라는 본질적인 차이를 가진다. 최근 축제가 관광 자원화되어 가고 지역 주민보다 관광객의 참여가 늘어남에 따라 여행과 축제의 경계가 다소 모호해져 가고 있지만, 축제는 일상 생활권에서 일탈을 통해 지역 주민이 하나가 되는 잔치가 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화천의 산천어축제가 지역 주민의 경제적 성과만 논의하기에는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 축제의 참여를 통해 지역 주민이 하나가 되고 산천어축제의 정신이 전수되어야 한다. 전통축제와 관광축제의 갈림길에서 지역민의 에너지를 어디에 쏟아 부어야할지, 축제가 나아갈 길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손님을 맞이하며 손님의 관광축제가 아닌 지역민이 공감하는 지역축제로 거듭날 때 비로소 지역의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